

보도 일시	2022. 10. 21.(금) 09:00	배포 일시	2022. 10. 21.(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양성미 (044-203-2516)

## “문화누리카드는 내 인생의 화수분”

- 10. 21. 문화누리카드 수기·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수상자 총 30명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함께 취약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수기·사진 공모전을 열고 수상자 총 30명을 발표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 대상(문체부 장관상)에는 고령이고 신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작가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문화누리카드는 내 인생의 화수분’이 선정됐다. ‘제9회 문화누리카드 수기·사진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열린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형태인 ‘문화누리카드’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총 2,936억 원(국비 2,068억 원과 지방비 868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전원인 263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경험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문화누리카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부문, 사업담당자(주민센터 담당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주 등) 부문, 일반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여 총 177편을 접수했고, 샘터사 이종원 편집장 등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문체부 장관상) 3명, 최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4명 등 총 3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 이용자 수기 부문: ‘문화누리카드는 내 인생의 화수분’, 대상 수상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어릴 때부터 심폐기능이 약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친 허리와 무릎 이상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던 여성 만학도가 우연히 알게 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2개 대학교에 동시 입학해 향학열을 불사르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내 인생의 화수분>이 대상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추석과 설날, 딱 두 번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었던 영화연출 지망생이 문화누리카드를 만난 후 한발 한발 더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을 그린 <기다림 없는 즐거움>과 ▲ 녹록지 않은 집안사와 희귀난치성 루푸스 판정으로 집안에만 갇혀 생활하던 24세 여성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담은 <나의 청춘은 문화누리카드가 있어 빛난다> 두 편이 수상한다.

##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 문화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눈 이야기, ‘이거 모자 아니야?’, 대상 수상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복지재단 직원이, 요양원에서 양말목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는 83세 어르신들의 변화 과정을 보며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한 지원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한 <이거 모자 아니야?>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지금껏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막일하며 평생 장애인 동생을 돌봐온 69세 어르신이 늦게나마 자신의 은밀한 꿈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의미를 되새긴 <옥탑방에 있는 꿈다락방>이 받는다.

## 일반인 사진 부문: ‘아이와 함께한 남해안 여행의 추억’, 대상 수상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환기하고자 공모

대상을 확대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사진 분야를 신설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는 남해 독일마을 여행에서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최우수상에는 손자, 손녀와 함께했던 여수와 제주 여행의 추억을 담은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수기 부문 선정 작품에 대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삶의 행복과 여유를 되찾은 이용자들, 문화 소외계층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담당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수기의 진면목과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사진 부문 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덕분에 생긴 여행길의 설렘과 행복이 멋진 구도와 색감으로 눈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열망과 도전정신을 일깨우는 문화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확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 온 국민이 우리 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